

2분기 합계출산율 사상 첫 0.7명대 추락

한국의 2분기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도 0.7명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채 1명도 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지난 2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6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2분기 0.82명보다 0.07명 감소한 수치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한편, 지난 6월 한국 출생아 수는 1만 8,830명으로 지난해 6월 2만 1,504명 대비 2,674명, 12.4% 줄었다. 1만 8,830명은 통계청이 월간 출생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6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출생아 수다. 이로써 동월 기준 최저 출생아 수 기록은 75개월째 경신이 거듭됐고,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연속 감소 기록은 79개월로 연장됐다.

지난 6월 자연감소 즉,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숫자는 6,019명이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기는 2020년 4분기(0.76명)와 지난해 4분기(0.71명)에 이어 세 번째인데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나타낸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일반적으로 뒤로 갈수록 낮아지므로 3분기와 4분기 합계출산율

사진=shutterstock

한국은행, 첫 4연속 금리 인상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4월과 5월·7월에 이은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 결정이다.

지난 2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를 열어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연 2.25%였던 기준금리를 2.50%로 인상했다. 7개월째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통화 긴축,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 잇따른 대외 악재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배 풀린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4.5%에서 5.2%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7%에서 2.6%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연말 기준금리를 2.75~3.00% 수준으로 보는 시장의 기대는 합리적"이라며 올해 남은 두 차례 금통위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준금리가 1년 새 2%포인트나 뛰어오르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27조 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0.14% 하락해 2012년 8월 6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아파트 거래 절벽에 수도권 역전세난 확산

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전세로 물리고 있지만 가팔라진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2단지 35㎡매 15억5천 중수리, 전세안고	1단지 35㎡전세 7억
3단지 27㎡월세 4억/30 비화실 중수리	5단지 35㎡월세 4억5천/80 보통용, 화장실
3단지 27㎡매 11억6천 입주가능, 특용수리	4단지 20㎡전세 3억3천 1.25도, 특용수리
	4단지 35㎡매 15억3천 입주가능, 보형

하지만 시중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세대출 이자가 급등하자 수요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찾고 있다. 여기에 집값 고점 인식에 따른 '거래 절벽' 속에 급매로 나왔던 물건 중 일부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되며 물량 압박을 키우고 있다. 매물이 쌓이면서 전셋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

지난 25일 '한국경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3만4,173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2,215건(6.9%)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25일(2만1,511건)에 비해선 58.8%(1만2,662건) 급증했다.

다.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도에선 입주 물량까지 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당초 시장 안팎에선 이달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2년차를 맞아 전세난이 불거질 것이라 전망이 많았다. 집주인들이 그간 제대로 올리지 못한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관측이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올 1분기 1,374억원에서 2분기 1,572억원으로 14.41% 증가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